

지리 샘과 함께하는

시간을 걷는 인문학

조지묵 지음

길의 인문학
활동 노트





우리 동네 길 탐험 02

우리나라의 산맥과 고개 찾기 04

해류로 찾는 독도 영유권 05

대관령 옛길 함께 넘기 06

지리산 둘레길 탐방 계획 세우기 08

강길을 따라 생활권 살펴보기 10

한강의 과거와 현재 모습 알아보기 12

한반도의 철길 따라 가기 14

로드킬 없는 생태통로 찾아보기 16



〈우리 동네 길 탐험〉

1.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쌓여 길이 되면서 저마다의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1-1. 요즘처럼 아스팔트로 포장되기 이전의 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 세계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길이 생겨나기도 했고, 로마인들처럼 돌으로 도로를 만들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고대 길의 형태와 특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아래에 그림으로도 그려 보세요.



1-2. 우리 동네 길 탐험을 떠나 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있는 오래된 길을 찾아 역사와 이름의 유래 등을 조사해 보세요.

길의 이름	
길 이름의 유래	
길의 특징	
길에 담긴 역사	

<우리나라의 산맥과 고개 찾기>

2. 다음 지도는 우리나라의 산맥을 나타낸 것입니다. 높고 험준한 태백산맥과 남북으로 뻗은 낭림산맥, 그 주위로 다른 산맥들이 빗살처럼 뻗어 있습니다. 산맥이 많다 보니 우리 조상들은 산맥을 넘을 수 있는 고개를 찾아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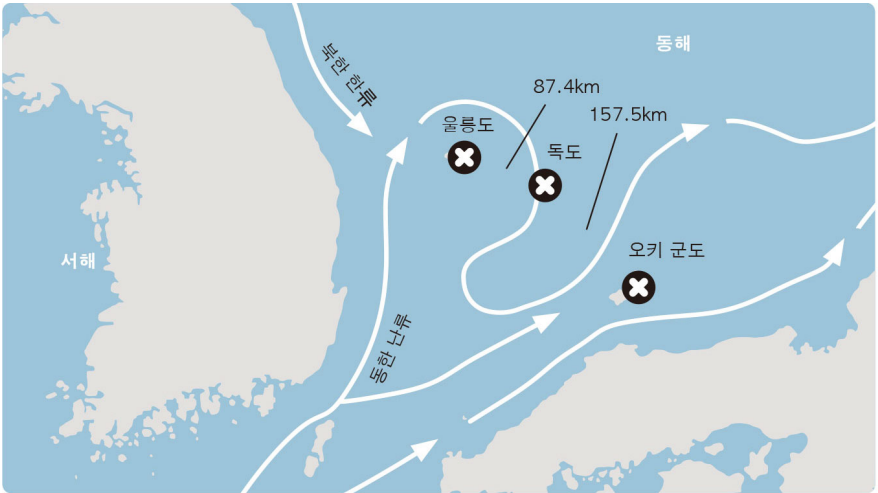
2-1. 아래 글에 나오는 고개를 인터넷에서 찾아 위의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고개를 나타내는 한자어로는 ‘령’(嶺), ‘현’(峴), ‘치’(峙), ‘천’(遷) 등이 있고, 순우리말로는 ‘재’, ‘고개’ 등이 있다. 조령, 죽령, 추풍령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를, 육십령과 팔랑치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를, 노령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추가령은 북한의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이어준다.

- <고개를 넘어야 만날 수 있다> 중에서 -

〈해류로 찾는 독도 영유권〉

3. 다음은 우리나라 주위의 해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대 우리 민족의 바닷길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선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바람과 해류의 흐름에 따라 항해를 했지요. 해류의 방향으로 추론해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지도를 잘 보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해류의 방향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67쪽 참조)



.....

.....

.....

.....

.....

〈대관령 옛길 함께 넘기〉

4.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인 대관령은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연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해발고도 832미터에 달할 만큼 높고 서울과 영동을 잇는 태백산맥의 관문이기도 해요. 다음의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봅시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 허균의 누나이자 조선 최고의 시인인 난설헌 허초희,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이자 화가인 신사임당,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울곡 이이……. 이들은 각기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대관령에서 내려다보이는 강릉에 살았다.

- 〈많은 이들의 사연이 걸린 큰 고갯길〉 중에서 -

4-1. 신사임당은 홀로 계시는 친정어머니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며 대관령을 넘어 한양으로 갔다. 그때 지은 시 「유대관령망친정」은 지금도 대관령의 중간쯤을 알리는 정자에 남아 있다. 본인이 사임당이 되어, 시를 낭독해 보자.

유대관령망친정 踰大關嶺望親庭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서울 향해 떠나니 외로운 마음뿐
돌아보니 북평촌은 아득도 한데
흰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慈親鶴髮在臨瀛

身向長安獨去情

回首北坪時一望

白雲飛下暮山青



5-2. 대관령의 위치를 백지도에 표시하고, 대관령 옛길의 지도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빈 칸에 넣어보자.

대관령의 위치	대관령 옛길의 지도 또는 사진
 A blank outline map of South Korea, showing the country's borders and major islands. The map is intended for students to mark the location of Daegwallyeong.	

<지리산 둘레길 탐방 계획 세우기>

5. 다음은 지리산 둘레길을 지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총 295킬로미터의 지리산 둘레길은 남원시와 함양군, 산청군, 구례군, 하동군에 걸쳐 있습니다.



5-1. 다음 글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밑줄 친 지역을 인터넷에서 찾아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걷고 싶은 코스를 하나 선택해 구체적인 탐방 계획을 세워 보세요.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많은 것과 만나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남원 구간은 백두대간이 지나며 지리산 주능선을 가장 많이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 윤봉 들녘

제방 길과 남원-구례를 잇는 숙성치 등 옛 고갯길을 지난다. 이 길은 동편제(전라도 동부 지역에 전승되는 판소리를 일컫는다)와 이성계의 전설이 남아 있는 길이기도 하다. 구례 구간은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운조루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를 지난다. 구례와 하동을 넘나들던 당재와 같은 고갯길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마을을 잇는 숲길과 섬진강 제방을 즐길 수 있다. 하동 구간은 차밭과 섬진강 독길을 따라 걸으며 '지리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악양 무덤이 들판 같은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녀가 하면 최치원의 자취가 남아 있는 청학동,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평사리 등 역사·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도 있는 곳이다. 조선의 대학자 남명 조식의 흔적을 좇는 길로 대표되는 산청 구간은 지리산 동부 능선인 웅석봉 숲길을 거쳐 지나간다. 함양 구간은 남강의 지류인 엄천강을 따라 걷는 강변길과 한국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빨치산 길로 대표된다. 지리산 둘레길은 무려 117개의 마을이 연결된 이름의 길이다.

- <걸을 때 더 아름다운 길> 중에서 -

가장 걷고 싶은 코스:

.....

.....

탐방 계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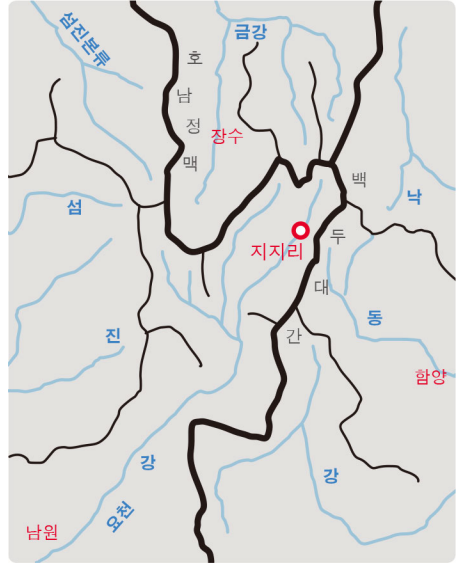
.....

5-2. 만약 여러분이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할 것이라면, 어떤 구간을 며칠 동안 걸어서 완주할 것인지 일정을 계획해 보세요. 왼쪽 지도에 계획한 일정을 표시해도 좋습니다.

<강길을 따라 생활권 살펴보기>

6. 다음의 지도와 글은 지지리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한 것입니다.

(97쪽 참조)



지지리 마을

6-1. 지도에서 각 마을이 위치한 지역과 섬진강, 금강, 낙동강 등 강의 위치를 고려하여 밑줄 친 내용의 이유를 추론하여 써 보세요.

전라북도 장수의 지지리 사람들은 동쪽 경상남도 함양의 사투리가 아니라 남쪽 전라북도 남원의 사투리를 쓴다. 지지리 마을에서는 함양이나 장수가 남원보다 가깝다. 남원은 지지리에서 남쪽으로 섬진강 줄기를 따라 한참을 내려가야 있다. 하지만 지지리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넘어 장수나 함양과 교류하기보다는 강을 따라 내려와 남원 사람들과 교류했다.

-〈먼 곳의 사람들을 묶어 주는 강〉중에서-

6-2. 집 주위에 하천이나 강이 있나요? 있다면 직접 강줄기를 따라 걸어보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주위로 어떤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없다면 가장 가까운 하천이나 강의 지도를 인터넷에서 찾아 같은 활동을 해 보세요.

강(하천) 이름:

.....

.....

.....

통과하는 지역:

.....

.....

.....

주위 생활권의 특징:

.....

.....

.....

.....

<한강의 과거와 현재 모습 알아보기>

7.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이루어졌고 총 길이는 약 480킬로미터입니다. 한강의 이름은 ‘큰 물줄기’를 뜻하는 ‘한가람’에서 왔지요. 다음은 삼국 시대에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를 잘 보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세요.



7-1.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입장에서 한강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유를 책에서 찾아 써 보세요. (98-99쪽 참조)

백제:

.....

.....

.....

고구려:

신라:

7-2. 현재 한강에는 강을 건너는 31개의 다리와 예전에 배가 건너다녔던 장소인 나루, 시민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한강 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 보고 싶은 장소를 골라 인터넷으로 가는 방법과 역사적 유래, 둘러보기 좋은 곳 등을 찾아보고, 탐방 계획을 짜 보세요.

가보고 싶은 곳:

역사적 유래:

둘러보기 좋은 코스:

〈한반도의 철길 따라 가기〉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0세기 초, 남북 간을 오가던 길은 주로 철길이었다. 경의선, 경원선, 동해북부선, 그리고 철원역에서 출발하는 금강산행 전기 철도가 있었다. 당시 우리 땅에 철길이 놓인 것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필요와 조선 지배 강화 및 중국 진출 목적이 그 주요 배경이었다. 철길의 힘은 대단했다. 자동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힘만으로 같은 무게의 짐을 끌었고, 전쟁 시에는 막대한 군수품을 신속히 나르는 1등 공신이였다. 그러니 적이 이용하지 못하게 철길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에도 한강의 한강 철교와 대동강의 평양 철교가 무참히 파괴되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철도가 핵심 수송 수단이고 도로는 보조 수단이다. 또 철도는 군사용이기도 하므로 철도 공무원과 함께 군대가 관리한다.

-〈단절에서 소통으로 가는 철도〉중에서 -

8-1. 위 글에서 언급한 경의선과 경원선, 동해북부선에 대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경원선:

.....

.....

.....

경의선:

.....

.....

.....

동해북부선:

.....

.....

.....

9-2. 우리나라(남한)의 최북단 철도역과 최남단 철도역은 어디일까요? 일반인들이 오갈 수 있는 최북단의 철도역과 최남단의 철도역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최북단 철도역:

.....

.....

.....

.....

.....

최남단 철도역:

.....

.....

.....

.....

.....

〈로드킬 없는 생태통로 찾아보기〉

9. 인간들의 도로 건설로 인해 동물들이 살던 곳에서 이동로를 잃어버려 도로를 건너다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로드킬’ (roadkill)이라고 합니다. 산을 깎아 만든 도로가 전국 각지로 생겨나면서 로드킬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165~166쪽 참조)

9-1. 로드킬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9-2. 그렇다면 로드킬을 예방하는 방어 운전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또는 책에서 검색하여 써 봅시다.





내 앞에 펼쳐진 길들이 역사적 장소로 재탄생한다.
사회를 잇고, 문화를 엮고, 경제를 지탱해 온
세상의 모든 길을 걷는 인문학 여행!

- 길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 ‘토끼가 열어준 길’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꿨다고?
- 신작로는 무엇을 위한 길이였을까?
- 높을수록 거꾸로 가라? 산을 넘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 독도 영유권의 해답이 흐르는 바닷길에 있다고?
- 1400킬로미터 백두대간 산길을 걷는 이유는?
- 빠른 길이 생기면 모두에게 경제적일까?
- 키시미강 운하는 완공되자마자 왜 다시 메워졌을까?
- 제주 용머리 해안 산책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사계절 (주) 사계절출판사

(우)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52 | 전화 (031)955-8561 | 홈페이지 www.sakyejul.net
 블로그 skjmail.blog.me | 유튜브 www.youtube.com/user/sakyejulbook
 페이스북 facebook.com/sakyejul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akyejul

사계절 인문학 출판 노트

